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4. 11. 22.(금) 06:00 < 11.22.(금) 석간 > 배포 2024. 11. 21.(목)

'2050 중장기 원전산업 로드맵' 수립 전담반(TF) 최종회의 개최

- 산업부, '2050 중장기 원전산업 로드맵' 초안 마무리 단계
- 관계부처 및 기관 의견수렴 등 거쳐 이르면 연내 발표 예정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11.22(금) 한국원자력산업협회에서 최남호 2차관 주재로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 수립 TF' 최종(4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동 로드맵은 정치 환경 변화와 무관히 안정적으로 원전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토대 마련의 일환으로써, 산업부는 지난 3월부터 관련 전문가 TF를 구성하여 실무 작업을 진행해 왔다.

이날 회의에도 한수원 황주호 사장, 원자력연구원 주한규 원장을 비롯한 원자력계 산·학·연 전문가 16명이 모여 우리 원전산업의 중장기 비전과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로드맵의 초안을 최종 점검하고, 확정하였다.

전담반(TF)은 2050년 국내 원전산업의 목표 매출·고용 규모를 로드맵의 장기 비전으로 하여,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발전전략으로써 ❶원전 운영 고도화, ❷소형모듈원전(SMR) 선도국 도약, ❸원전의 수출산업화, ❹원전산업 기반(연구개발(R&D), 인력, 투자 등) 및 ❺원전정책 인프라(법·제도 및 수용성)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산업부는 동 로드맵 초안에 대한 관계부처 및 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고, 이르면 연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최남호 2차관은 "지난 2월, 경남 민생토론회 당시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시작된 로드맵 수립에 장기간 힘써주신 위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전담반(TF)의 노고를 치하하는 한편, "로드맵의 수립과 더불어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 과 '고준위방폐물 특별법' 등 법적 기반 마련 또한 지속 추진하여, 향후 원전정책이 흔들리지 않고 예측 가능하게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확실하게 쌓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원전산업정책관 원전산업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대일 (044-203-5320)
		담당자	서기관	김준겸 (044-203-5321)
			사무관	박계영 (044-203-5326)
			사무관	황창호 (044-203-532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